



◁창령 권룡사 올라가는 길에서 만난 주인 모를 부도.

# 죽음도 삶의 일부...두려워 말자



<16> 삶의 흔적-부도

힐손을 한해 알뜰 어떤 사진가 한분이, 요즘은 죽음을 실감한다고 하면서,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좀 착잡해지는 심정을 느꼈다. 죽음이란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나는 생명에 대해서만은 다소 운명론적이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늘 태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내 주변에 노목사 한분이 계신데, 이 분은 딱가파 목사여서 승용차 운전도 아주 협하게, 그야말로 딱가파식으로 하는 분이요. 나는 늘 남의 차를 타고 같이 다는 편이어서 이 분의 차를 자주 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분의 차를 잘 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거나 죽거나 할 운명이라면, 이 차를 타지 않고 다른 차를 타고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편이어서, '운명은 재차(在車)'라고 서슴없이 타고 다닌다. 그리고 조금도 불안해 본 적이 없다. 사람은 목숨에 대해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보약먹고 몸 사린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하거나 몸 보신이 되는게 아니라는 게, 좀 그릇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 기본 소신이다. 죽을려면 길에 지나가다가 빌딩에서 떨어지거나 하필이면 허구 많은 곳 중에 한 사람 머리 정수리에 떨어져 죽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란게 내 운명관이다. 생명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질병이 거의 정복되고, 인간 생명은 크게 연장될 것이라고 해서 조금도 즐거움 없이 아니란 것이 내 생각이다. 인간의 죽음이 질병에서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끼리의 살육도 있고, 대량살상의 전정도 있을 수 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때 죽은 사람이 보약 안 먹어서 죽은 건 아니지 않은가? 문제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생애에 대한 애착이 아닐까?

죽음은 무엇일까? 생명 현상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일까? 아니면 한 평면의 역과 양면이 이어진 것과 같은 것일까? 죽음은 결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통과역에 같은 것이라면 의연

히 맞이하되 겸허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죽음을 슬퍼한다. 코끼리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산자의 슬픔일 뿐이다. 사람은 주검에 대해 성대하고 화려하게 의례를 치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산자를 위한 행사일 뿐이다. 죽은 자는 이 세상에 이미 초연해 있을 뿐이니까, 죽은 자는 '포 하나'의,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의젓하게 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성대한 장례나 화려한 무덤이 죽은 자가 가는 또 다른 세계에 꽃길이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래전 나는 어떤 이의 죽음을 픽션으로 써 놓은 적이 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남에게 의존해 살고, 죽을 때, 아니 죽어서도 남의 손에 의존하게 된다. 큰 소리 쳐도, 죽어서 남의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난 참으로 이상했다. 그것은 한낱 물질일 뿐인 몸덩이를 장식하려는 인간의 허세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어느 깊은 산 속으로 홀로 들어 간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이어서도 좋고, 아니면 산새들이 저마다 지저귀는 한 철 여름이어서도 좋다. 그는 산기슭에 누워 있다. 풀이 모포처럼 푸근하다.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이 뚝뚝 떠가기도 좋고, 짙은 먹구름이 하늘에 두텁게 덮여 있어도 좋다. 풀 잎을 깔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 보니 온통 하늘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담겨 들어와 마음이 무척 편해진다. 밤이 되니 다소 으스스해진다. 그는 낙엽이든, 아니면 나무 잎이든 굵어 모아 이불처럼 덮는다. 그리고 스트르 잠이 들어 버린다. 그의 사체가 발견된 것은 육개월 후쯤으로 할까? 그의 몸은 이미 자연이 되어 있었다.

### 성대한 장례 산자 몫일뿐 죽은자는 세상 일에 초연 산기슭 버려진 부도 하나 최선 다하는 인생 배우게

어느날 창령의 권룡사 올라가는 길목에 이상한 부도가 하나 버려진 채 있었다. "어떤 이의 부도일까? 학덕이 높으신 스님의 부도는 물론 아닐 것이고, 그래, 아마 이 산기슭에서 평생토록 부처님만 섬기고 살았던 어떤 노부부의 무덤일지도 몰라. 그는 아마 부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한 무지렁이 임지 꼴라. 오직 늘 마음속에 부처님 생각과 마음만 가득했을 뿐. 평생을 그러고 살았겠지." 상상으로 가득한 이 부도가 나는 잊혀지지 않는다.

전생(사건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 그윽한 문자향속 선기 활발

한글대장경의 세계

#### 원감국사집 · 백운화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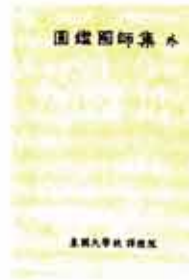
한글대장경의 168번째는 고려시대의 걸출 원감국사(圓鑑國師)와 백운화상(白雲和尙)의 문집이다.

송강사 16국사 가운데 6번째 국사(曹諝六世)로 고려고종 13년(1226) 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학문에 밝아 17세에 사원시를 거쳐 19세에는 훈위에 장원하여 영가서기로 부임했다. 바로 일본에 사신으로 가 뛰어난 사재와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의 벼슬은 승승장구했으나 불법수행에 마음이 깊어 29세에 이르러 선원사의 원오(圓悟)국사에게 나아가 머리를 깎고 먹을 옷을 입었다.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남쪽의 산야를 돌며 수행의 고비를 다잡아 머무는 곳마다 불발이 창성했다. 주지 등 소임을 일체 거부했으나 41세가 된 행에 스승의 교유를 받아 경남 김해의 감로사 주지가 되었다. 감로사에 주석하는 동안 수많은 운수남자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고 절도 부흥했다. 그러나 6년 이 지나서 스님은 조계산 정혜사(宗鏡寺)로 자리를 옮겨 활방법반한 선종을 드날렸다. 스님은 정혜사로 옮긴 직후 시 한 수를 지었는데 이것이 원오국사로부터 조계의 법맥을 잇는 단서가 되었다.

계곡산 봉우리 앞에 옛 도량이 있어  
지금 오니, 푸른 산은 유달리 빛나네  
맑은 시내의 장광설이 절로 여기에 있나니  
무엇하러 수다스레 세상 거량하리.

스승 원오국사가 입적하기 전 총림왕에게 스님을 수선사의 사주로 추천하는 글을 올림으로 마침내 수선사의 6세사주가 되기도 했다.



백운경한

화상은 고려말기의 선사로 행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제자 석찬이 편찬한 백운화상어록이 전해 한시대의 걸출이 남긴 체취를 맛 볼 수 있다. 어록의 서문은 저 유명한 목은 이색(李穡)과 이구(李玖)가 썼다. 이구의 서문에 의하면 스님은 전축 고부에서 태어나 어려서 출가했으며 중국에 건너가 지공과 석육 등 거장들에게 배우고 심인을 전해 받았다.

백운스님의 선풍은 나옹 태고 스님과 함께 임제선에 속하지만 태고스님과는 다른 맛이다. 중국의 석육선종을 잇되 태고의 간화선과 달리 간화를 말하지 않은 것이 백운의 독특한 가풍인 것. 백운이 주창한 것은 무심무념(無心無念)이었다. 이러한 백운의 가풍은 그의 어록들에 알맞게 드러났다. 여주의 위암사에서 말년을 즐기다 입적한 백운화상의 임종계는 입울수록 생사초탈의 담백함이 묻어났다.

인생 활성세는/ 예부터 또한 희유하네/ 일흔 일곱 해를 왔다/ 일흔 일곱 해를 돌아가거니/ 이른 곳마다 모두가 돌아가는 길이요/ 만나는 곳 모두 고향일세/ 어찌 나뉠배를 물어/ 뼈아픈 땅으로 돌아가길 바라라/ 내 본래 지니지 않았음에/ 마음 또한 머물 곳 없네/ 재를 만들어 사방에 뿌리어/ 단 나시주의 땅을 범하지 않으리.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383, 역경후원금 온라인 납입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 M 연꽃불자시계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든든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연성 맞춤시계』

#### M 불자용 방석



『법회, 기도하실 때 뿐만아니라 사무실 의자,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쁘고 실용적으로 만든 방석입니다.』

#### M 겹다포



『전통적인 방법으로 염색하여 색상이 너무나도 곱습니다.』

#### M 한방속옷 세트



『한방속옷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의 료로써, 기존의 인체에 예민한 화학약품으로 염색한 의류와는 전혀 다른 순 황토 속등 연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네의입니다.』

#### M 옥(玉)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배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48,000원, 휴대용 248,000원

#### M 우리말 모법연화경



· 내용물 : 27. 보현보살관발품까지 총 27장의 CO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15%(270,000원-229,500원=40,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 정상이 : 270,000원 ◯ 할인가 : 229,500원

#### M 자개모자佛자



· 크기 : 가로 235mm x 세로 560mm x 높이 25mm  
· 색상 : 적색, 흑색  
· 가격 : 660,000원